

3/4분기 멕시코 국제수지

□ 멕시코 경상수지 적자규모 GDP의 1.2% 수준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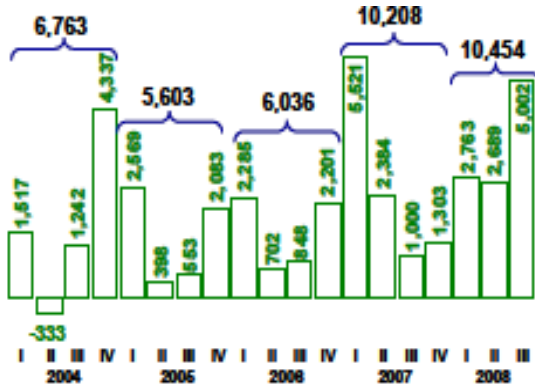
- 멕시코의 3분기중 경상수지는 5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총 104.5억 달러로 2004년 이래 최대
- 주요원인으로는 수출 대비 수입 초과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와 서비스 및 소득 수지도 적자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기인

멕시코 국제수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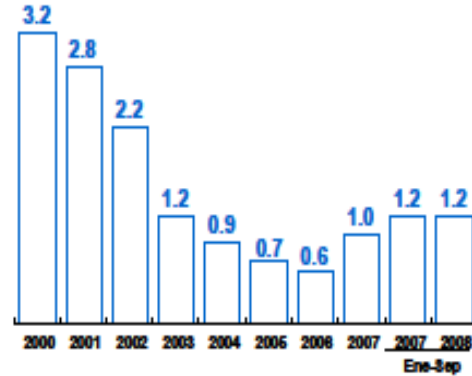
	2008년				2007년		
	1분기	2분기	3분기	1-3분기	3분기	1-3분기	연간
경 상 수 지	-2,763	-2,689	-5,002	-10,454	-1,000	-8,904	-10,208
상 품 수 지	-1,501	-767	-6,113	-8,381	-2,395	-7,157	-10,074
수 출	70,258	79,514	78,783	228,555	70,269	198,194	271,875
수 입	71,759	80,281	84,896	236,936	72,664	205,351	281,949
서 비 스 수 지	-772	-1,944	-2,411	-5,127	-2,265	-4,697	-6,260
소 득 수 지	-5,906	-6,377	-2,506	-14,789	-2,752	-15,518	-18,190
경상이전수지	5,416	6,399	6,028	17,843	6,412	18,468	24,316
석 유 수 지	5,332	6,183	3,527	15,042	4,776	12,098	17,341
비석유수지	-6,833	-6,950	-9,640	-23,423	-7,171	-19,255	-27,415

(단위 : 백만달러)

연도별 경상수지 적자추이(백만불)



연도별 경상수지/GDP 추이(%)



□ 양호한 수출 증가세 불구 수입 늘어나면서 상품수지 적자 확대

- 멕시코의 3분기 상품수지는 61.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수출증가율은 둔화된데 반해, 고유가로 인한 석유제품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확대

<수 출>

- 3분기중 멕시코의 수출은 787.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1%가 증가했으나, 1분기 및 2분기 수출증가율 16.6% 및 17.5%에 비해 증가세 둔화
- 부문별로는 석유부문 수출이 3분기까지 고유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2.3%가 증가했으나 1분기 및 2분기 증가율 51.8% 및 50.9%에 비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꺾였으며, 비석유부문도 8.2%가 늘어났지만 최대시장인 미국의 수요 감소로 수출 감소세 뚜렷
- 특히 자동차의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7.1%가 감소

<수 입>

-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8%가 늘어난 849.0억 달러로 1분기(14.4%) 및 2분기(14.7%) 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는데, 석유제품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74%나 급증한데 기인
- 품목별로는 소비재 21.4% 증가, 중간재 14.6% 증가, 자본재 24.9% 증가

□ 여행수지 흑자폭 감소, 기타 교역비용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

- 3분기 서비스수지는 수입 42.1억 달러 지출 66.2억 달러로 24.1억 달러의 적자를 시현했는데, 치안 불안으로 멕시코 여행 외국인 감소에 영향을 받아 여행수지는 7.6억 달러로 흑자폭이 감소했으며, 나머지는 교역과 관련한 서비스지출로 31.7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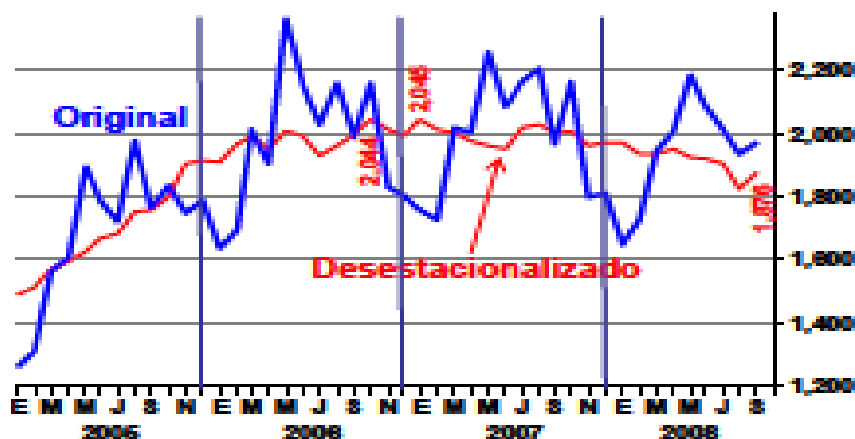
□ 이자 지급, 과실송금 등으로 소득수지 적자 시현

- 3분기 소득수지는 수입 42.1억 달러 지출은 66.2억 달러로 25.1억 달러의 적자를 시현했는데, 지출의 주요내역은 대외이자지급 17.6억 달러, 과실송금 10.9억 달러 등

□ 해외근로자 송금 급감으로 경상이전수지 흑자폭 감소

- 3분기중 경상이전수지는 60.3억 달러 흑자를 보였는데, 해외근로자 송금이 59.3억 달러로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
- 그러나 멕시코 국적의 근로자가 많은 미국 건설시장의 침체로 해외근로자 송금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이에 따라 3분기 송금규모는 전년동기대비 6.5%가 감소했으며, 1월부터 9월까지 누적규모는 175.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가 감소

연도별 해외근로자 송금 규모 추이(백만불)



□ 외국인직접투자, 정부·민간부문 해외차입 등으로 자본수지 흑자 지속

- 3분기중 자본수지는 2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정(+의 요인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 민간은행, 비금융민간기업 외화 차입 등

자본수지 현황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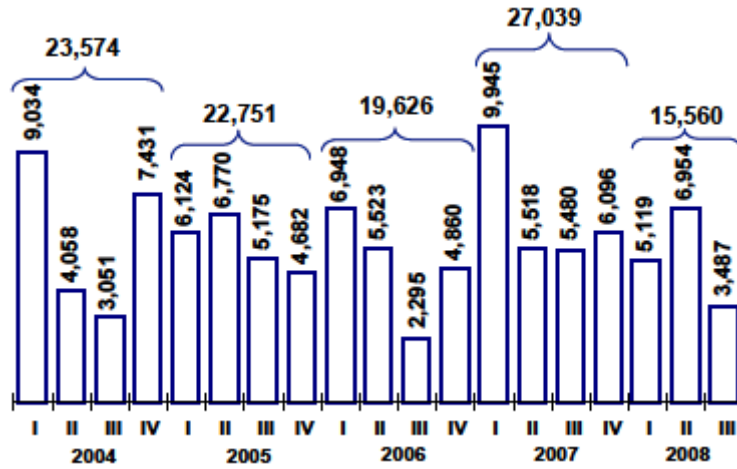
	2008년				2007년말
	1분기	2분기	3분기	1-3분기	
자 본 수 지	6,971	2,368	2,666	12,005	20,660
부 채	10,925	13,610	7,793	32,328	50,692
채 무	1,860	2,839	4,330	9,029	15,081
개 발 은 행	-729	-284	-85	-1,098	-1,040
상 업 은 행	-229	1,803	-443	1,131	3,026
중 앙 은 행	0	0	0	0	0
비 금 용 공 기 업	-759	-1,351	-1,126	-3,236	-5,908
비 금 용 민 간 기 업	387	-1,588	3,359	2,158	5,778
멕 시 코 투 자 기 금	3,190	4,259	2,625	10,074	13,225
투 자	9,065	10,771	3,463	23,299	35,611
직 접 투 자	5,119	6,954	3,487	15,560	27,039
기 타 투 자	3,946	3,817	-24	7,739	8,572
주 식 시 장	-999	2,251	-4,147	-2,895	-482
금 용 시 장	4,945	1,566	4,123	10,634	9,054
자 산	-3,954	-11,242	-5,127	-20,323	-30,032

<외국인직접투자>

- 3분기중 대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34.9억 달러로, 투자성격별로는 순 증분은 16.7억 달러, 이익채투자는 1.3억 달러, 모기업으로부터의 대출은 16.9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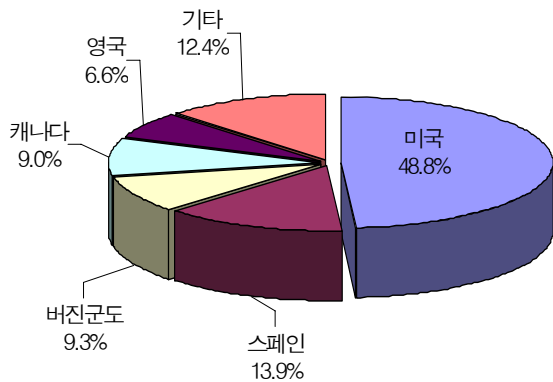
※ 1월부터 9월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155.6억 달러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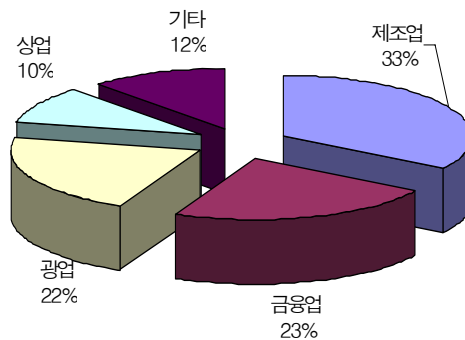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3.8%로 가장 많고, 금융업 23.1%, 광업 21.5%, 상업 9.9%이며, 투자국별로는 미국이 48.8%로 최대투자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스페인(13.9%), 버진아일랜드(9.3%), 캐나다(9.0%), 영국(6.6%) 순

국가별 투자비중



업종별 비중



<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